

# 산업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sup>1)</sup>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인식 하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가구주 취업정보와 노동소득을 이용하여 중사 산업분포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주의 중사 산업간 소득격차가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정도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집단간 소득격차가 불평등을 설명하는 정도에 비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2~1997년의 시기에는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던 시기에도 산업 측면의 요인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거나, 혹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 1. 머리말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계층 간 소득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렇게 소득분배가 악화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제위기의 일시적인 충격 이외에도 무언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불

어 그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확대와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확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확대, 기술 집약적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의 격차 확대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인구구조의 고령화나 가족구조의 변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글은 그 가운데에서도 산업구조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이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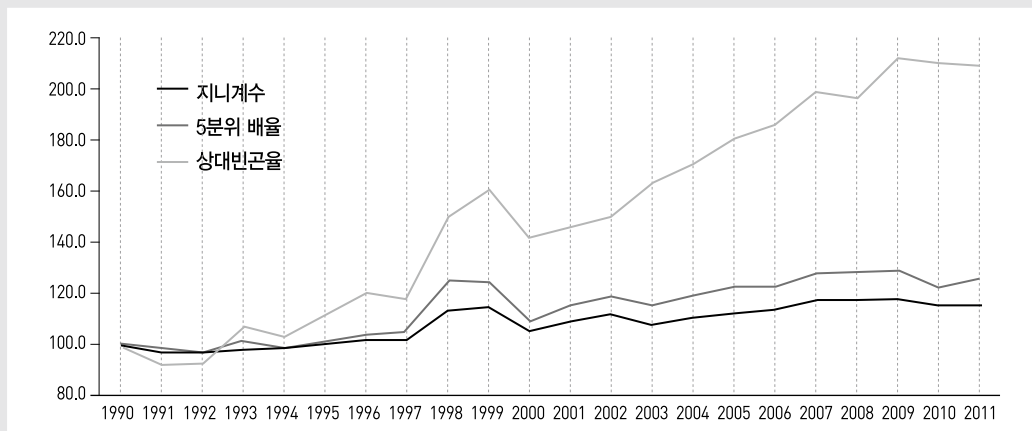
1) 이 글은 '강신욱·강두용·홍민기·정현성(20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수정, 요약한 것임.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 주요 소득분배지표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다음 [그림 1]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1997년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1990년대 초기부터 장기적인 소득분배 악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노동시장의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전의 시기에도 이미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이 2000년대 이후의 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1990년대 초반에 작용하고 있었던 분배 악화의 요인이란 재분배정책의 변화와도 무관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나 조세·복지정책 등 재분배 정책과 구분되는 생산물 시장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글은 그러한 생산물 시장 요인 가운데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만일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적 논의는 주로 조세정책이나 복지지출 등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려는 재분배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거나, 또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고용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한 다른 특징들에 비해 산업구조적 요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1990년 이후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2인 이상 도시가구, 1990=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2. 분석자료와 방법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거시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미시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거시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지표(예, 지니계수)에 대해 충분히 긴 시간에 걸친 관측치를 얻을 수 없어 분석의 제약을 받게 된다. 거시 모형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에 미친 원인을 분석한 연구 가운데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다수 있으나 한 나라에 국한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시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와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시기별로 조사에 포함된 가구의 범위가 변하였다<sup>2)</sup>. 이 글에서는 1990년 이후의 소득분배를 살펴보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할 때 산업 요인은 취업한 개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개인 단위에서 분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생산 활동 연령대의 모든 개인(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종사 산업을 비롯하여 취업 관련 정보(취업 여부, 종사 직종, 종사상 지위 등)와 개인별 소득 자

료가 제공되는 가구주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때, 가구주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연령(25세 미만, 65세 이상)과 실직 상태의 가구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 이면서 취업한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의 노동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의 합)을 분석 대상 소득 범주로 삼았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 혹은 개인 소득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때,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경제지표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취업 가구주의 산업별 분포의 변화를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방법론적 문제는 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즉 다양한 산업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묶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방법은 서비스업의 발전과 분화라는 현실을 잘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전체 산업을 8개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8개의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5개의 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이다<sup>3)</sup>.

마지막으로 불평등을 지표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분배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불평등의 변화경향이 달리 포착될 수 있고,

2) 자료의 명칭 또한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자료 등으로 시기별로 변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가계동향조사자료로 통칭하기로 함.

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 원자료부터 9차 개정된 산업분류에 따라 가구주의 종사 산업을 모두 17개로 구분하고 있음. 이를 8개의 산업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등은 분석에서 제외(전체 취업가구의 0.1%)하였고 건설업에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을 포함시켰음. 사업서비스업에는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사업 등을 포함하였음. 유통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개인서비스업은 숙박및 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것임.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을 모두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음. 2005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여 재분류하였음. 단 일부 분석의 경우 이와 같은 산업재분류가 불가능한(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업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1990~1991년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분석 가능한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지표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이하 MLD)과 지니계수를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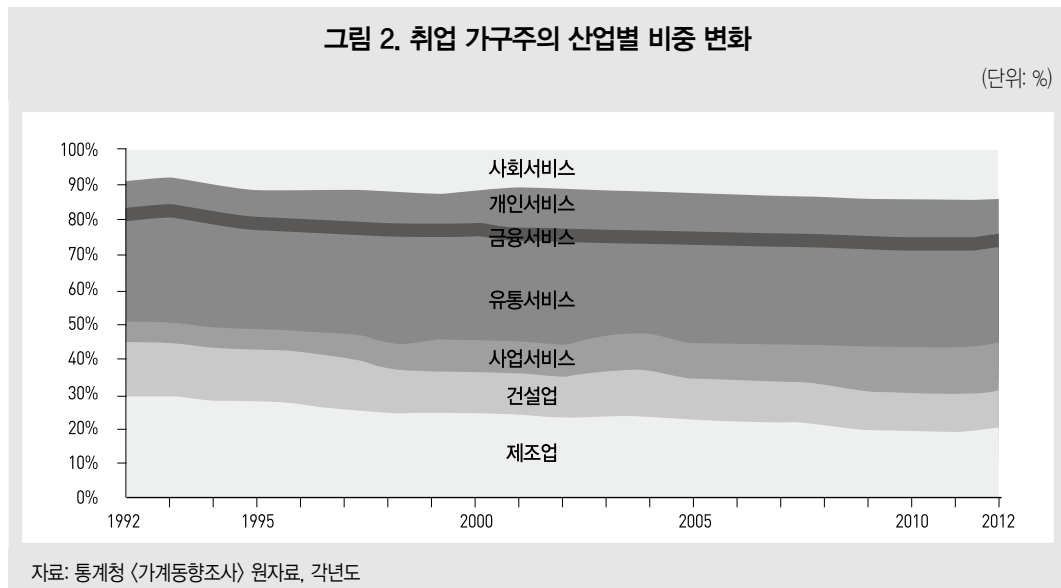
### 3. 취업 가구주의 산업별 분포와 소득 격차

아래 [그림 2]는 취업 가구주의 종사 산업의 분포가 1992년 이후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2012년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유통서비스업(26.1%)이고 다음으로 제조업(19.2%), 사회서비스업(13.2%)의 순이다. 농림어업(0.2%)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작은 것은 금융서비스업

(3.5%)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 거의 30%에 달하던 것이 20여년간 10%p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5개 서비스업을 모두 합한 경우 그 비중은 1992년부터 2012년 사이에 54.9%에서 69.5%로 높아졌다. 비중의 증가율 면에서 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사업서비스업(206.0%)이고 다음 개인서비스업(42.3%)과 사회서비스업(60.7%)이다. 농림어업<sup>4)</sup>을 제외하고 감소의 속도가 높은 것은 제조업(-34.8%), 건설업(-26.7%)의 순이다. 이와 같이 취업가구주의 종사 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산업구조는 지난 20년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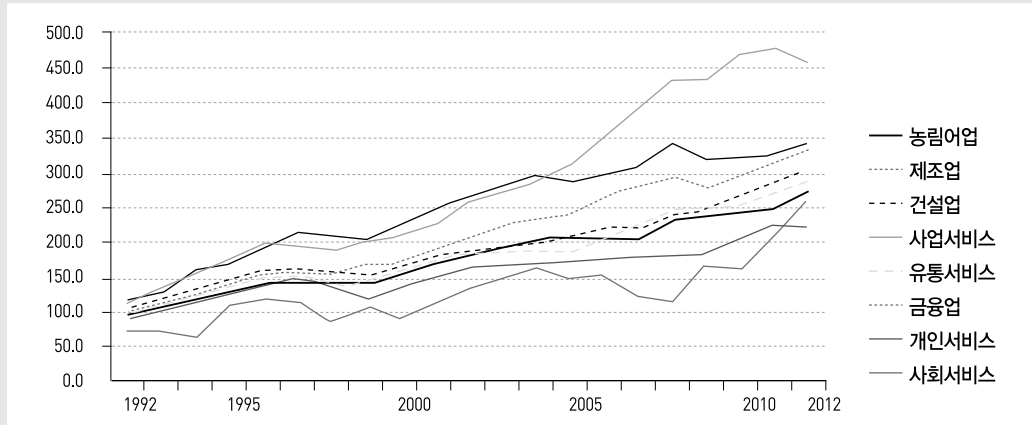
다음 [그림 3]은 8개 산업별로 가구주 노동소득의 평균값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그



4)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은 것은 도시 거주 가구주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기도 함.

그림 3. 산업별 가구주 평균 노동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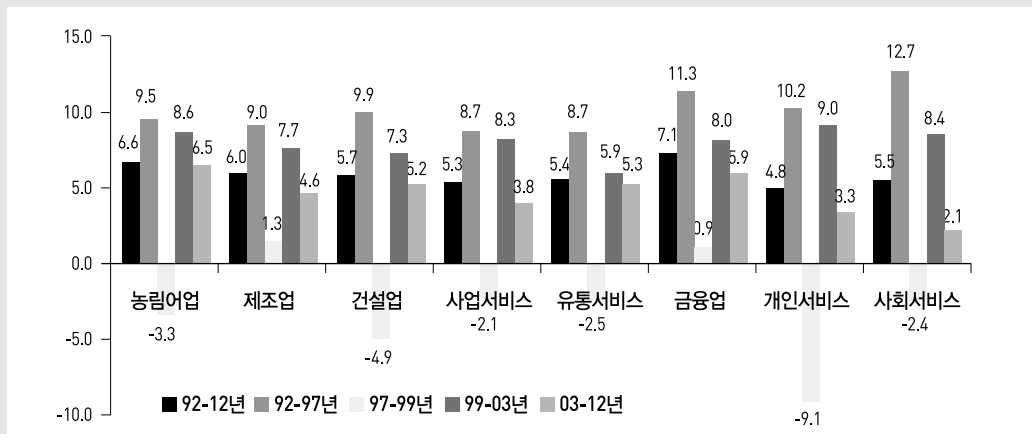
(단위: 만원/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4. 산업별, 기간별 가구주 노동소득 증가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림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산업별로 소득격차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소

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업,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이다. 반면 가장 낮은 것은 개인서비스업이다. 개인서비스업은 최근 들어 농림어업보

다 낮아졌다.

[그림 4]는 1992~2012년간 가구주의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각 산업별, 시기별로 비교하고 있다. 전체 기간동안 가장 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금융업으로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4.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기간 동안 전체 가구주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약 5.6%였는데, 취업 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인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5.3%), 사회서비스업(5.5%) 등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득증가율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커졌다는 사실로부터 산업구조의 변화와 불평등의 심화와 무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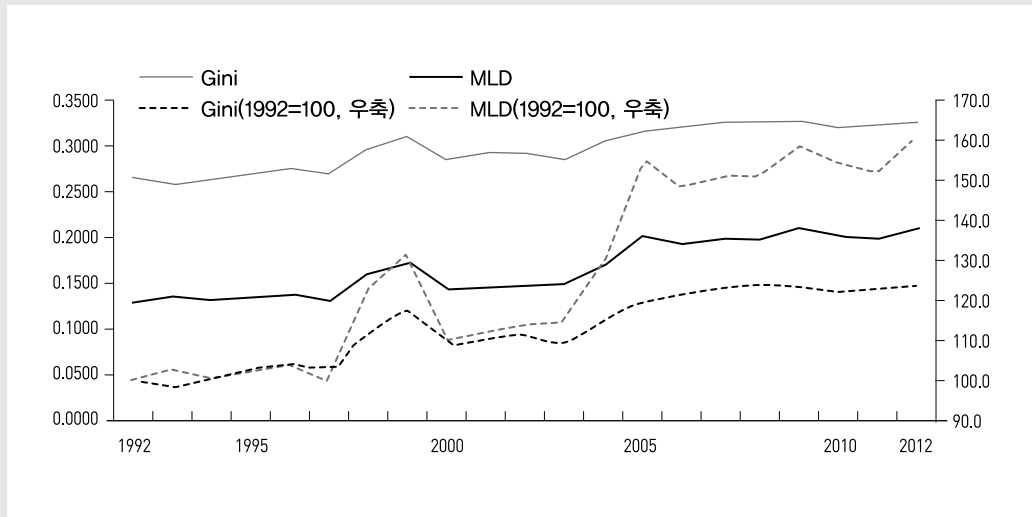
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 4.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의 산업별 분해

### 1) 정태적 분해

먼저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1992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보면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측정했을 때와 MLD로 측정했을 때 모두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년의 불평등 수준을 100으로 간주하였을 때 2012년의 지니계수는 약 123으로, MLD는 약 161로 증가하였다.

그림 5. 취업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불평등 지표로서 MLD는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하부 집단(sub-group)간의 불평등과 하부 집단 내부의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전체 산업을 8개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8개 산업별 불평등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불평등의 변화를 산업 내 불평등의 변화와 산업간 격차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각 해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MLD)을 이용한 그 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전체 기간에 걸쳐

예외 없이 산업 내 불평등의 기여분이 90%를 넘고 있어 산업간 불평등보다는 산업 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그림 6]은 8개 산업별로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이는 것은 유통서비스업이고, 가장 낮은 기여율을 보인 것은 금융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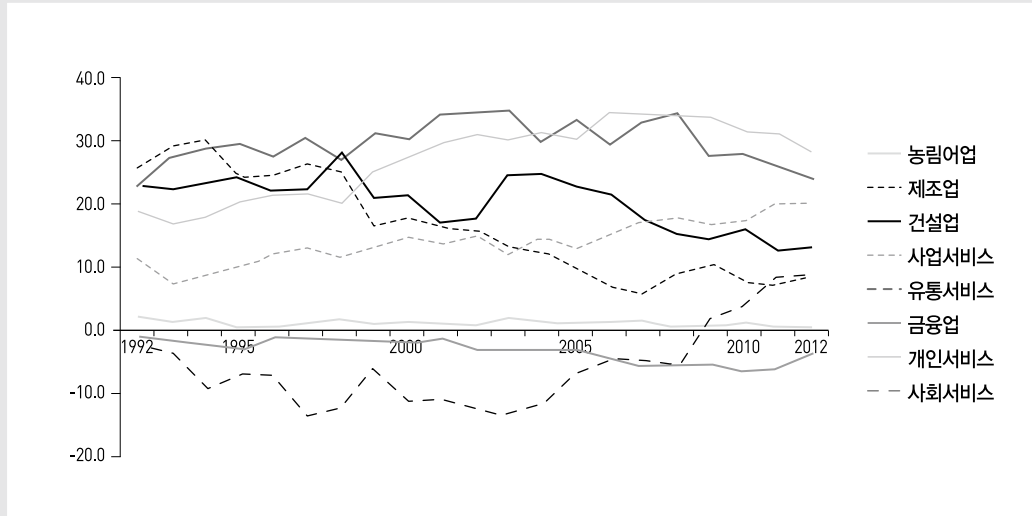
**표 1. 산업구분과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

연도	불평등 (MLD)	산업내 불평등의 기여율 (%)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 (%)
1992	0.1312	97.8	2.2
1993	0.1346	98.2	1.8
1994	0.1315	96.0	4.0
1995	0.1336	96.7	3.3
1996	0.1355	96.5	3.5
1997	0.1304	95.2	4.8
1998	0.1606	94.4	5.6
1999	0.1721	93.9	6.2
2000	0.1442	93.4	6.6
2001	0.1472	93.9	6.1
2002	0.1489	93.0	7.0
2003	0.1490	91.9	8.1
2004	0.1694	92.0	8.0
2005	0.2026	93.2	6.8
2006	0.1944	91.6	8.4
2007	0.1985	90.1	9.9
2008	0.1979	89.8	10.2
2009	0.2087	92.6	7.4
2010	0.2026	93.3	6.7
2011	0.1995	94.2	5.8
2012	0.2112	95.5	4.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6.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MLD)에 대한 각 산업의 기여율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 특히 금융업의 기여율은 (-)로 나타나 전체 불평등의 변화를 상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업의 기여율은 1992년 25.8%에서 2012년에는 약 8.6%로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동안 -2.5%에서 28.8%로 방향과 크기 면에서 비중이 크게 변화하였다. 서비스업 전체의 기여율은 같은 기간 동안 49.1%에서 77.8%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해 결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어떻게 다른가. 이를 살펴본 것이 아래의 <표 2>이다. <표 2>는 가구를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직종 등의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각 하위 집단 간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몇 %를 설명하는지를 비교하고 있다.<sup>5)</sup>

이 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인구집단을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17.5%)이고 가장 낮은 것은 연령대에 따라 구분한 경우(3.7%)이다. 산업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의 기여도는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인 기여율 면에서 산업간 불평등은

5) 여기서 연령대는 30대, 40대, 50~64세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미만, 대졸 이상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음.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직종은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숙련 및 반숙련노동, 단순노동 및 기타 5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음.



표 2. 가구조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비교

(단위: %)

	산업(8)	성별(2)	연령대(3)	학력(4)	종사상 지위(4)	직종(5)
1992	2.2	9.5	1.6	13.5	3.7	11.6
1993	1.8	7.1	1.2	10.2	4.4	7.9
1994	4.0	8.0	0.6	12.4	5.6	14.3
1995	3.3	8.9	0.7	12.6	5.4	13.4
1996	3.5	9.4	1.5	13.4	5.5	14.2
1997	4.8	8.9	1.6	14.0	5.0	15.6
1998	5.6	6.5	1.1	15.2	7.6	18.3
1999	6.2	10.1	1.9	17.6	9.4	21.9
2000	6.6	9.9	2.5	16.7	8.7	20.3
2001	6.1	8.1	1.5	19.7	8.6	21.8
2002	7.0	8.2	2.0	16.9	7.1	18.7
2003	8.1	8.3	2.2	17.9	19.4	20.6
2004	8.0	9.6	2.9	18.0	20.4	19.6
2005	6.8	8.4	2.7	16.1	10.6	17.5
2005	8.4	10.8	2.5	19.0	9.9	19.6
2006	9.9	10.4	2.4	19.2	11.9	21.7
2007	10.2	11.9	2.3	19.8	10.9	22.2
2008	7.4	11.3	3.3	18.8	24.0	20.8
2010	6.7	11.5	4.2	16.3	20.6	19.4
2011	5.8	15.6	5.2	17.1	19.8	18.1
2012	4.5	11.7	3.7	16.2	17.5	16.3
평균	6.0	9.7	2.3	16.2	11.2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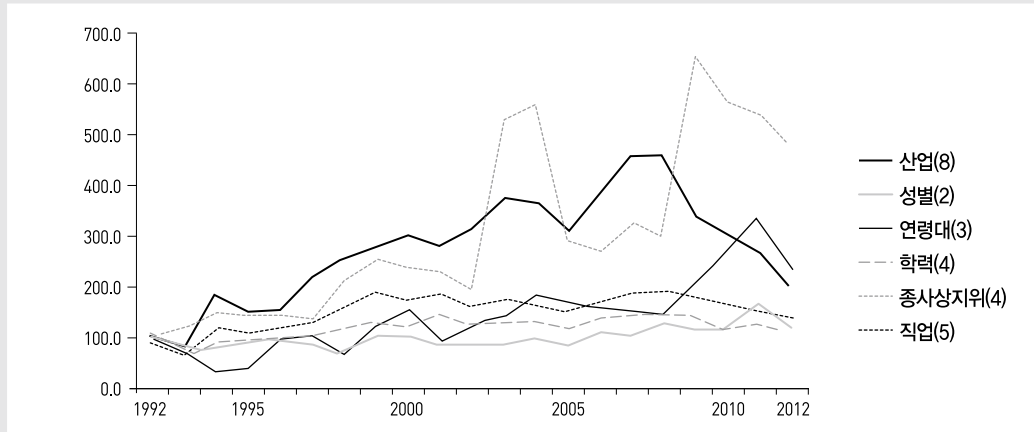
주: 괄호는 각 기준에 따라 구분된 하위 집단의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른 기준에 따른 인구집단간 불평등에 비해 특별히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그림 7]을 보면 산업별 불평등의 기여율이 다른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과 비교하여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1992년의 집단간 불평등 기여율을 100으로 간주하여 비교한 것이다. 1997년 이전의 시기에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다른 기준에 따른 경우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에도 전체 불평등에서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다른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율보다 그 정도는 작았으나 증가 속도는 현저히 높았다. 2000년대 중반의 시기에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예외적으로 급속히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면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전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MLD)에 대한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변화(1992=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2) 동태적 분해

MLD에 대한 정태적 분해가 특정 시점의 불평등에 대한 각 하위집단의 기여를 보여준다면, MLD에 대한 동태적 분해는 일정 기간 동안의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각 하위 집단의 기여를 보여준다. 아래의 <표 3>은 MLD의 동태적 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MLD의 동태적 분해란 두 시점 사이의 불평등(MLD)변화를 집단 내 불평등의 변화, 집단 간 불평등의 변화, 집단 구성 비중의 변화 등 세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이 전체 변화의 몇 %씩을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또한 <표 3>은 산업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이외에도 성별,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직종 등을 기준으로

동태적 분해를 수행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2~2012년 사이의 전체 기간은 물론 전체 시기를 넷으로 나누었을 때 각 기간별 분해 결과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sup>6)</sup>

산업별 집단 구분의 경우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나 구성비의 변화는 전체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 악화에 있어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큰 것은 직종(44.3%)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37.3%)이다. 구성비의 변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성별(23.2%) 및 연령대(24.9%)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이다.

그런데 각 시기를 구분하여 보면 산업별 구분에 따른 효과에서 특징적인 점이 나타난다. 집단간 불

6)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992년 대비 1997년에는 MLD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이는 1996년까지의 경우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이였다는 점(표 4-1)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부터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된 것을 볼 때 이례적인 현상임. 이는 1997년이란 시점이 갖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은 1997년 말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1997년의 소득부분배상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표 3.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비교

(단위: %)

시기	△MLD	산업(8)			성별(2)			연령대(3)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92~12년	0.0802	74.7	10.4	15.0	75.8	1.0	23.2	62.1	13.0	24.9
92~97년	-0.0008	727.0	-33.9	-593.1	173.8	894.7	-968.4	1064.9	-7.2	-957.7
97~99년	0.0417	90.2	9.4	0.4	84.6	10.9	4.5	98.8	1.8	-0.6
99~03년	-0.0231	112.7	3.2	-15.9	77.9	21.0	1.1	119.7	-7.1	-12.6
03~12년	0.0623	98.4	0.1	1.5	76.1	17.8	6.1	78.9	5.6	15.5
시기	△MLD	학력(4)			종사상지위(4)			직업(5)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92~12년	0.0802	79.3	-0.1	20.8	62.6	37.3	0.1	55.0	44.3	0.7
92~97년	-0.0008	167.3	-5.6	-61.7	316.1	-140.8	-75.2	2215.1	-1926.6	-188.5
97~99년	0.0417	73.9	25.2	0.9	75.6	23.1	1.3	54.7	32.4	12.8
99~03년	-0.0231	82.4	15.4	2.3	155.8	16.9	-72.7	65.3	29.9	4.8
03~12년	0.0623	92.6	15.1	-7.7	89.0	16.0	-5.0	94.3	5.7	-0.1

주: 괄호는 각 기준에 따라 구분된 하위 집단의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평등 변화의 효과와 집단 구성비 변화의 효과를 합하여 볼 때 산업간 구분을 통해 본 효과는 직업, 연령대, 종사상 지위에 이어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1992~1997년 사이에는 산업별 구분에 따른 경우가 직업, 연령대에 이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한다. 즉 1990년대 초반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효과가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성비의 변화가 불평등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즉, 1992년 대비 1997년에는 불평등이 다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간 불평등과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의 효과는 성별이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의 효과보다는 작지만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 직종 등에 따른 구분의 경우보다는 구성비 변화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효과가 해소되던 국면인 1999~2003년의 기간의 경우 불평등은 다시 완화되었으나 이 시기에도 산업, 연령,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는 구성비 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세 기준에 따른 집단 구성의 변화가 매우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불평등 심화에 작용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5.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분해

앞 절에서 분석한 MLD 분해는 전체 집단을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후 불평등의 수준 혹은 그 변화에 대해 각 하위 집단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적절한 방법이였다. 그러나 이 때 하위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한 가지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가구주의 산업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불평등 분해를 시도한다면 산업 이외의 요인들(예컨대 연령이나 성별, 종사상 지위 등)을 동시에 고려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는 방법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한 후, 이 회귀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수(요인)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Fields(2003)의

방법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수준 및 특정 시기 사이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씩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노동소득 불평등의 수준 및 그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종사 산업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직종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sup>7)</sup>

아래의 <표 4>는 이들 각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준다. 기타 요인을 제외할 경우 소득격차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모든 시기에서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은 시기에 따라 그 기여율이 변하게 되는데, 종사상 지위는 1992년의 경우 (기타요인을 제외한)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이 6.3%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17.1%로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 24.6%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이나 직종이 소득격차의 설명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는 달리 산업 요인은 큰 변화가 없으며, 그 비중 역시

표 4.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

(단위: %)

연도	1992	1997	1999	2003	2012
연령	3.0(12.3)	3.4(12.1)	3.0(9.1)	2.5(7.3)	3.2(11.9)
교육수준	7.1(29.6)	8.4(29.5)	8.9(26.5)	7.5(22.0)	3.8(14.4)
성별	7.3(30.2)	7.3(25.7)	7.2(21.4)	6.3(18.7)	9.3(34.6)
종사상지위	1.5(6.3)	2.4(8.5)	5.7(17.1)	9.0(26.7)	6.6(24.6)
산업	1.6(6.4)	2.5(8.6)	2.0(5.9)	1.8(5.3)	1.8(6.8)
직종	3.7(15.2)	4.5(15.7)	6.7(20.1)	6.8(20.0)	2.0(7.7)
기타	75.9	71.5	66.5	66.1	73.3

주: 괄호는 기타를 제외했을 때의 기여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7) 소득수준의 결정과 관련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강신욱 외(2013)을 참조할 것.

표 5.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율

		지니계수의 변화				MLD의 변화					
		92~97	97~99	99~03	03~12	92~12	92~97	97~99	99~03	03~12	92~12
불평등 변화		0.0097	0.0367	-0.0232	0.0378	0.0610	-0.0009	0.0417	-0.0231	0.0623	0.0800
기 여 율 (%)	연령	16.3	0.1	10.2	8.7	4.1	-69.3	1.8	6.8	4.9	3.5
	교육수준	43.2	12.4	26.4	-23.8	-10.4	-188.1	10.4	17.9	-4.8	-1.5
	성별	8.8	5.9	17.4	31.5	17.9	-1.2	6.6	12.5	16.2	12.5
	종사상지위	26.7	30.7	-35.4	-12.1	28.6	-134.9	16.1	-15.6	0.7	14.9
	산업	27.1	-1.5	4.3	1.8	2.9	-137.0	0.5	3.2	1.8	2.2
	직종	26.6	23.8	6.6	-33.9	-5.0	-120.4	13.8	6.6	-9.2	-0.6
	기타	-48.8	28.6	70.5	127.8	61.9	750.9	50.7	68.5	90.4	69.0
		100	100	1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약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97년까지는 산업의 기여율이 종사상 지위의 기여율을 상회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표 5>는 두 시점간 불평등의 변화에 대해 각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해한 결과이다. 표의 좌측은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을 측정했을 때의 분해 결과이고 우측은 MLD를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이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92~97년의 경우 지니계수는 0.0367 증가한 것으로, 즉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MLD의 변화는 음(-)의 변화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MLD의 절대적 변화 폭은 매우 작아 각 요인별 기여율의 절대값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분석 대상 기간

을 통해 볼 때 교육수준과 직업 요인은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한 반면 다른 요인들은 지니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즉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산업 요인은 불평등 심화 요인 가운데에서는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만을 본다면 산업은 교육수준 다음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1992~1997년 사이의 시기에 산업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는 점은 MLD의 변화를 이용한 분해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997년 이후의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종사상 지위나 성별 요인이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1997년 이전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6. 맺음말

불평등의 정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보았을 때,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서비스나 사회서비스업 등 소득증가율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빨리 확대된 반면 금융업이나 제조업과 같이 소득증가율이 높은 산업의 비중이 천천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이 최근 들어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을 종사 산업별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여타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에 비해 산업 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더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산업간 불평등의 설명력은 타 요인에

따른 설명력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과 다른 점을 보인다.

첫째,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2~1997년의 시기 동안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1997년 이전에는 산업 요인이 종사상 지위에 비해 불평등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둘째,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던 일부 시기에도 산업 요인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불평등을 완화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산업구조의 변화는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단기적 충격요인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근원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